

“청년들도 부처님께 반했어!”

진홍사, 마하청춘법회 창단

취업 걱정, 스펙 쌓기 등 각박한 경쟁 사회에서 여러 고민으로 지쳐가는 청년들에게 힘을 제공하고자 통도사 말사 진홍사(주지 정법)가 20·30대 청년들을 위한 법석을 마련했다.<사진>



진홍사는 4월 30일 송광정사 법당에서 13명의 청년들이 모인 가운데 ‘마하청춘법회’ 창단 법회를 봉행했다. 참석한 청년들은 그동안 불교를 접할 기회가 없었던 학생과 직장인들로 대부분 불교 입문자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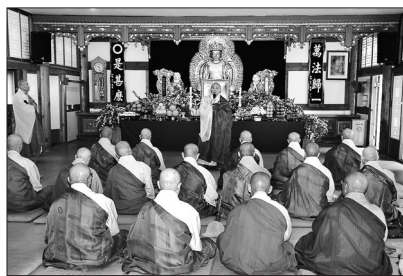
앞으로 마하청춘법회는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 오후 5시 1부 법회, 2부 청춘

하성미 기자

해암 대종사 탄신 97세 기도법회

해암문도회 등 대중 200명 동참

대한불교조계종 제10대 종정 해암 대종사 97세 탄신기도법회가 4월 28일 해인사 원당암 선불당에서 봉행됐다.<사진> 이날 해암 스님 탄신 97세를 기리기 위해 해인총림 해인사 방장 원각 스님과 해암문도회장 성법 스님, 대종스님과 재가불자 200여 명이 동참했다.



해인사 방장 원각 스님은 “원당암 선불당은 어려움 속에서도 불사를 회향하신 큰스님의 유지를 받들 곳이다. 청정한 선방에서 문도스님들과 재가신도들은 더욱 열심히 수행정진하는 것이 자기 성찰과 불교의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도회장 성법 스님은 “법신은 오고 감이 없으니 매사에 말을 아껴 침묵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큰스님의 과거생, 현생의 인연으로 수행정진해 부처님의 가피를 얻고 성불의 길을 견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한국불교대학 감포도량 ‘보은전’ 낙성

지상 3층, 면적 1200㎡ 규모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는 회주 우학 스님의 천일 문무관 결사를 기념해 5월 1일 감포도량에 사부대중 1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보은전과 공덕대탑 낙성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감포도량에 낙성한 보은전은 지상 3층, 총 면적 1200㎡ 규모다. 대중법회를 열 수 있는 1층 무일법당은 스리랑카 정부가 기증한 부처님 진신사리가 안치돼 있다. 사경명상에 사용될 2층 공덕법당은 비취로 만든 관세음보살이 봉안돼 있고, 3층 선재법당은 자살과 요사채로 꾸며져 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法·戒 엄매임 없는 참된 수행자 되라”

성관음사 일우 스님, 성우 스님에게 율맥 전수받아

한국불교의 전통 율맥이 전수됐다. 지계제일 우바리존자와 같은 또 한 명의 ‘율사(律師)’가 탄생한 것이다.

대구 성관음사 주지 일우 스님은 4월 30일 조계종 전계대회상 성우 스님(BTN불교TV 회장)에게 율맥을 전수받았다. 율사 자운 스님의 계맥이 성우 스님을 통해 일우 스님에게 전달된 것이다. 특히 종단을 넘어선 전법 인가는 드문 사례라 더욱 눈길을 끌었다.

부처님의 계법을 이어 해동 율맥의 자랑 율사로부터 이어오던 율맥은 조선 후기로 와서 용성, 한암 스님에게 이어졌다. 현대에는 자운 스님이 율맥을 다시 중흥시켰고, 이 율맥은 종수·일타·지관·성우·철우 스님에게 이어졌다. 일우 스님은 자운 스님의 율맥을 계승한 성우 스님의 12번째 전법 제자가 된 것이다.

일우 스님은 영남의 대강백으로 명성이 자자했던 의룡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96년 강맥을 전수받았다. 율사 성우 스님과는 BTN에서 ‘법화정법 법화신행 법화행자 시리즈 강의’를 하며 인연을 맺었다. 텍스트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며 불교를 강의하는 일우 스님에 대해 성우 스님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이윽고 자신의 계맥을 전수하기

로 마음을 먹었다. 이날 율맥 전수식에서 성우 스님은 자신의 전법 제자에 대한 애정이 그대로 드러났다. 계맥을 전수한다는 계법과 더불어 전법계를 한문·한글로 나눠 써서 전달했다. 또한 전계의 징표로 25초 가사와 삼보륜이 새겨진 불자, 주비, 60권에 달하는 ‘사분율’을 내렸다.

성우 스님은 전법계를 통해 “법에 걸리지도 말라, 계에 걸리지도 말라. 법과

중단 넘어선 전법은 드문 사례 성우 스님 12번째 전법제자로 한국불교 전통율맥 계승 ‘눈길’ “바른불교 전하는 데 노력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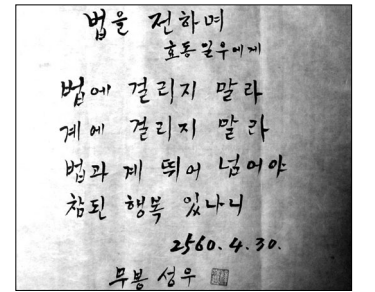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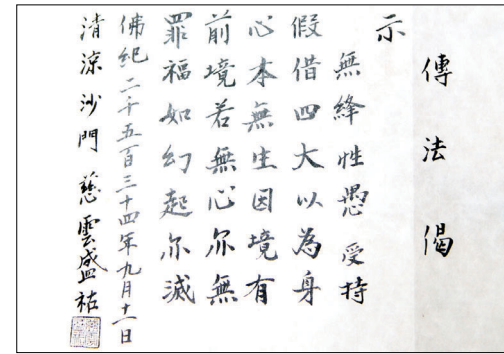
계를 뛰어넘어야 참된 행복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법계와 계법과 더불어 죽비를 함께 전달한 것은 끊임없이 정진하고 스스로를 경계하기를 당부하는 의미”라면서 “수행자는 마지막까지 성성적절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우 스님에게 율맥을 전수 받아 ‘경·율·논’에 대한 모든 인가를 받은 일우 스님은 “모든 것에 걸림 없이 살아



대구 성관음사 주지 일우 스님이 4월 30일 열린 전등율맥 전수식에서 조계종 전계대회상 성우 스님에게 삼보륜이 새겨진 불자를 전법의 징표로 받고 있다.



일우 스님이 성우 스님에게 받은 전법계. 한글과 한문이 따로 적혀져 있다.

가리는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정진하겠다”면서 “대중들에게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널리 전해 부처님께 바로 귀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 전수식 이후에는 신도들을 대상으로 한 보살계 수계법회가 봉

행됐다. 이날 보살계를 수지한 대중은 오계를 지키며 청정한 부처님의 제자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성관음사 대중들은 발원문을 통해 “가족 모두 부처님 가르침을 항상 배우고 자비행을 실천할 것”이라고 서원했다.

대구·신성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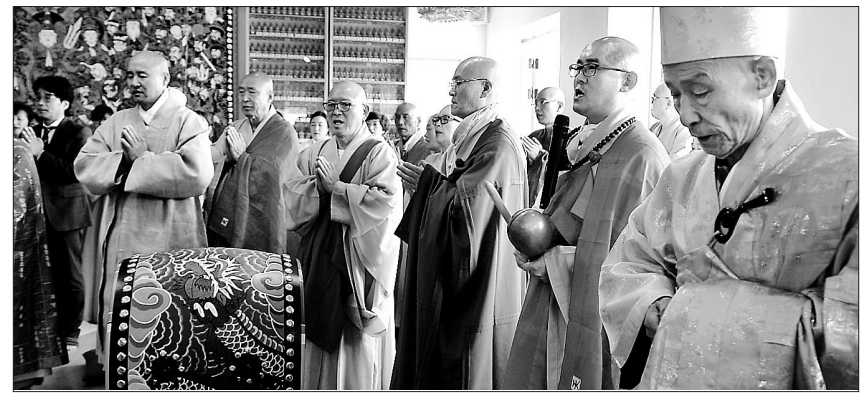
칠곡 조운사, 불상 점안 및 낙성식 봉행

성보전에 불사리 및 아라한사리 10만과 봉안

경북 칠곡 조운사(주지 월우)는 4월 16일 삼존불,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후불탱화 점안 및 법당 낙성법회를 봉행했다. 행사에는 응공조계종 종정 법운 스님, 원로의원의장 보은 스님, 태고종 대구경북교구 종무원장 관정 스님 등 사부대중 400여 명이 동참했다.

1부 점안식은 칠곡 삼명사 합창단의 집회가로 시작했다. 명진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이 집전을 맡았으며, 증명단으로 삼화상을 청하고 바라작법, 불사리, 고승사리 이운 등으로 점안의식을 장엄했다.

이에 따라 1층 성보전에는 불사리 및 아라한사리 10만과를 모셨으며 한국 고불전과 티벳, 몽골 등 여러 나라의 불전들이 전시돼 있다. 2부 낙성법회는 김경구 조운사 사무원의 경과보고와 합창단의 축하 및 축하무 등이 이뤄졌다.



칠곡 조운사는 4월 16일 삼존불을 비롯한 불상을 점안하고, 낙성식을 봉행했다.

이날 조운사 주지 월우 스님은 오랫동안 불사에 동참해준 사부대중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스님은 “불사를 위해 3년간 물심양면으로 애써주신 불자님들께 거듭 감사드립니다”며 “대작불사 회향을 시작으로 새롭게 불법(佛法)을 전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해인신 신도회장은 “정경도량에서 자비심을 내어 부처님 법을 따라 수행정진에 게으름 피우지 않고 더욱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말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부산 송광정사, 이전 및 불상 이운

부산 송광정사(주지 진각)는 5월 2일 연수로225번길15로 이전한 새 법당에서 ‘도량 이전 및 부처님 이운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이 자리에는 주지 진각 스님, 연제 구불교연합회 회원스님들과 김해영 연제구국회의원 당선자 및 박진호 동국대 부산동창회장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해 축하했다.

주지 진각 스님은 “새 법당에 자리를 옮긴 것은 어렵게만 느껴지는 불교를 융합불교문화 시대에 부응하도록 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라는 뜻으로 생각된다”며 “먹을 가까이 하면 겉게 된다는 근목자축의 의미처럼 오늘 부처님을 가까이하고 그 가피를 입어 행복하시길 발원한다”고 말했다.

송광정사 새 도량은 대지면적 82평의 3층 건물이다. 진각 스님은 현재 교육포교에 앞장서 무료로 운영하는 토요 스쿨 프로그램을 열어 학생들에게 한지를 가르치고 있다.

하성미 기자

법인설립허가번호 : 제2012-43호



부처님오신날을 축하합니다

특허청 업무표장특허등록 제 42-0005657호

사단법인 한국불교조계종

총정 경담 장각성 / 원로공동의장 금산, 일봉 성해 / 원로의원 도일, 무착, 보인, 원오, 지족, 도현, 지훈, 정일, 정공

■ 총무원

총무원장 장운
총무부 행정 최고위원 천문
감찰부 행정 최고위원 문봉
문화부 행정 최고위원 락현
재무부 행정 최고위원 덕산
기획부 행정 최고위원 진허
교육부 행정 최고위원 월성

■ 지역 최고위원

서울특별시 최고위원
부산광역시 최고위원
울산광역시 최고위원
대전, 충남, 세종특별자치시 최고위원
강원도 최고위원
경상남도 최고위원
경상북도 최고위원
전라남도 최고위원
전라북도 최고위원
충청북도 최고위원

행산
월산
보하
해인
조법
보각
월산
현진
해원
해인

■ 특별위원회

종단 총책 최고위원 무산, 무성
법계 고시 품수 최고위원 각원, 도천
사회복지재단 최고위원 초연



■ 법사단

총재 윤산

중앙단장
중앙부단장
서울특별시 법사단장
부산광역시 법사단장
인천광역시 법사단장
대전광역시 법사단장
울산광역시 법사단장
광주광역시 법사단장
강원도 법사단장
경기도 법사단장
경상북도 법사단장
경상남도 법사단장
전라북도 법사단장
전라남도 법사단장
충청남도 법사단장
충청북도 법사단장

태을주
도광
능혜
공호
명경
법광
원광
보경
노사나
청일
보현
보현
영산
해연
상룡

※ 전국최고위원 및 특별위원 상시 모집 / 사회복지, 장애복지, 의료재단 지부 모집

사단법인 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 JOGYE ORDER KOREA BUDDHISM & CORPORATION

총무원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81, 909호(수송동 두산위브파빌리온) TEL. 02)2198-5022~4 FAX 02)2198-5025 http://jogyejong.or.kr / kntga.or.kr E-mail:jogyeyo119@hanmail.net

총본산 : 사단법인 한국불교조계종 총본산 신해사

경남 사천시 곤명면 경서대로 2821-46 TEL : 055)855-1772 FAX : 055)855-0247